



NH농협 고창군지부, 농촌 봉사활동 펼쳐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는 지난 13일 일손이 부족한 고창읍 강모씨(80) 농가의 600여 평의 고추밭을 찾아 수확작업이 끝난 고추밭의 지주대, 고추대, 비닐 등을 철거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NH농협 고창군지부 진기영 지부장은 "지금 농촌지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가고령화, 영농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협 고창군지부는 농업인의 영농 현장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덕규 남원소방서장, 겨울철 안전관리 현장 방문 지도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5일 박덕규 서장이 운봉, 산내 등 동부권 지역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과 폭설 시 고립 예상지역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장 방문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운봉읍의 대형숙박시설인 오해브레이크호텔과 산내 일성지리산리조트를 방문해 화재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산내 뱀사골 일대 폭설로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을 순찰하며 유사시 즉각적인 소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제 진봉면, 사랑에 김장담그기 행사 가자

김제 진봉면(면장 오승영)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에(愛)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랑에(愛) 김장담그기 행사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며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 500여 포기를 지역의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정 등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소외계층 70세대에게 가까호호 방문하여 직접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쓰인 배추와 일부 채소는 인근 텃밭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성껏 직접 재배하여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다.

익산시, '중앙소풍' 성황리 열려

중앙동 일대에서 중앙동 산책 · 다양한 체험 · 경연대회 등 진행

익산시 중앙동 일대가 소풍을 나온 시민들로 활기로 가득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중앙동 일대에서 열린 '중앙소풍2021'을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양성된 도시 주민해설사들의 해설과 함께 중앙동을 산책하는 '중앙동산책', 시장통닭과 탄산음료(POP)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통닭' 즐기, 가족·친구·연인들과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7080공연, 먹거리 등이 마련됐다. 특히 '미스미스터 중앙' 경연대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가하여 재능과 끼를 맘껏 발산하는 등 모처럼 중앙동이 3일간 활기를 띄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지만 축제는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진행되었다. 축제 관람객들의 경우 행사장 입구에서 열체크 및 손소독을 철저히 실시했으며, 행사장 진출입로 교통통제와 행사 스태프들의 안내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중앙동 산책'에 참여한 한 가족팀은 "가족과 함께 해설을 들으며 산책하니 중앙동에 대해 몰랐던 역사와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중앙동에 자주 방문하게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중앙동에서 계속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닭을 즐긴 한 시민은 "맛있는 시장 통닭과 탄산음료를 5천원에 즐길 수 있어 가성비가 높았고, 마술, 노래,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다"며 "확장시킬 지주 놀던 이곳이 침체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오랜만에 북적이는 중앙동을 보게 되어 기쁘고 '중앙소풍2021'이 시발점이 되어 중앙동이 옛 명성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무주서 '마스터즈 사이클투어 챔피언십 대회' 2년 연속 열려

2021 마스터즈 사이클투어 챔피언십 대회가 2년 연속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마스터즈 사이클투어 챔피언십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과 전라북도자전거연맹이 주최 · 주관하고 전라북도,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한다.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국내 최상위 동호인 리그전으로서 선수와 임원 등 1,2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다. 경주 구간은 무주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용포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오산리까지 무주읍과 부남면을 아우르는 2개 구간으로, 매 경기 상위 60% 등위 선수만 다음날 경기 출전이 가능한 형식으로 치러진다.

선수들은 12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출발해 대치리 강변도로와 방이리, 삼유리, 장안리, 가담리, 용포리 구간(41.0km)을 1번 달리고, 13일에는 같은 구간을 2번(78.8km), 14일에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수리재터널, 내도리, 오산리로 이어지는 구간을 3번(58.5km) 달렸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서종열 팀장은 "마스터즈 사이클투어 대회를 통해 무주가 자전거 경주의 명소로 자리매김



해 관광객 증가와 홍보효과 등 고부가 가치 창출로 관광·스포츠로 무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 및 운영 인력이 4일 이상 머물면서 경기에 참여하게 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군은 위드코로나 상황임에도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개·폐회식을 생략하고 선수들을 비롯한 방문자를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윤섭, 두건민, 이건

군산 농업인, 농업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군산 농업인들이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5일 군산시는 제26회 농업인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농업분야 정윤섭(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두건민(케어팜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유통분야 이건(군산도정공장) 총 3명의 농업인이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윤섭(사)전국한우협회전북도지회 회장은 미경산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표준생산기술 및 브랜드를 개발했다. J-COW(고능력양소축군 조성) 사업을 통한 전북 한우 개량기반을 구축했으며 매년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성공을 모금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강화 형상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았다.

두건민 케어팜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논 타작물 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청년농업인으로써 생생동아리 운영, 귀농귀촌 협의회 멘토로 활동하며 청년농업인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농업·농촌 발전을 이끈 공로로 선정됐다.

군산도정공장 이건 대표는 정부양곡 도정공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 정부양곡 품질향상을 도모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공공비축 대형포대(톤백) 매일 정착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남현봉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행복살림단 모니터링

남원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16일부터 3일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 '행복살림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희망심어주기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등 총 5개분야 37개의 사업으로 이루어 졌으며 중점추진사업은 17개 사업이었다.

모니터링에는 사업담당 공무원 32명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회 및 시민 27명이 참석해 5회에 걸쳐 진행되며,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분야별 5개팀이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김재하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 계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민과 관이 하나되어 오는 2022년에는 보다 발전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 및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6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